

# 악마를 보았다 성화가 타오르는 곳에서

February 5, 2018 | 김종묵 기자



강원국제비엔날레 '악의 사전'

국가·계급·자본 이면 정면 고발  
"울림픽은 인간 가치 회복" 강조  
내달 18일까지 110여개 작품 전시

3월 개막한 강원국제비엔날레 주제는 '악의 사전'(The Dictionary of Evil)이다. 평화 동계올림픽 연재 행사에 언뜻 어울리지 않는 주제다. 출품작은 가난, 소외, 폭력, 인종, 동성애 같은 문제들 다룬다. 경쟁력과 역동적인 올림픽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시각 이미지 전면에 나선 이들은 난민, 절기민, 성소수자, 피폭자들이다. 이들이 피해자·희생자라면 가해자는 국가나 신채국주의, 계급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이다.

강원국제비엔날레에 참여한 미술인들은 '국력'을 과시하며 다루는 비아벤트를 고발하는 듯하다. 독립 큐레이터 제이스 웨이트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여러 국적의 예술가와 진행한 '바람을 따라가자 마세요'(Don't Follow the Wind)를 출품했다. 동일본 대지진 현장의 방사는 출입통제구역에서 관람할 수 없는 전시를 열었다. 출품작은 360도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다. 웨이트는 앞서 평창 올림픽 반대 연대의 '예술과 사회적 재난-후쿠시마와 평창 올림픽 개입' 포럼에도 나갔다. 알마그로 비엔날레에는 카자흐스탄 사회와 주민들에게 트라마를 준 456차례의 역살혐에 관한 비디오 설치 작품을 냈다.

양자치의 작품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가리칼, Tree man, 孔雀夫人 Sinas'를 출품한 양자치는 3월간의 알파인스키 경기 때문에 파괴된 가리칼산을 작품 소재로 삼았다. 공작부인과 트리맨은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 기괴의 생물체다.

동계올림픽은 이른바 선진국의 비종·영양력이 허겨해질피보다 크다. 멕시코 출신 호아킨 세구라의 'GS'은 용대강대국의 불타고 남은 국기 전태를 설치했다. 다른 국가의 문화와 고려하지 않는 강대국 주도의 세계화를 비판한다.

전시 포인트 중 하나는 '중동'이다. 아크릴 자타리라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아랍 정치범 사진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 수감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사진은 1990년대 것인데, 지금도 수감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탐만 아랍은 폭력당한 시리아를 재현한 '스토리' 연작을 내놓았다.

해피 알라의 '프래그먼트 프롬 언타이틀드21'(Fragment from Untitled 21)은 허술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왕하다 익사당하는 아프리카식단 난민의 이야기를 테크스트에 옮긴 작품이다. 작가는 난민이 '주변부로 쫓겨나 악마화된 존재'이 때문에 붉은 구명조끼를 입은 악마로 묘사했다.

전시장에 추방되고 배제된 자들의 이미지와 고통이 가득하다. 고통의 이미지들은 은유적 형태로도 드러난다.

올림픽이 출신의 리파엘 고프레 바로스의 '하우스 테이큰'(House Taken)은 400여개의 개미 조각으로 강제이주와 폭

력,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다. 두 개의 해골이 맞붙어 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개미들은 오랜 내전으로 갈라진 콜롬비아 사회를 반영한다. 심승숙은 8개의 황칠조 무대에 반공·전쟁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확성기로 증폭하고, 퍼포먼스로 재현하는 설치 작품을 냈다.

토마스 헤시먼도 '픽셀 콜라주 n° 21'(Pixel-Collage n° 21)을 출품했다. 잡지 광고 사진의 밝고 화려한 배후 이미지는 픽셀로 모자이크 처리하고, 심체 폭력으로 시뮬한 주검들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드러낸다. 폭력의 세계에서 미디어가 은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이다. '현실로 소환된 인명의 주검들'이란 전시 소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한국의 무조리한 현실 문제를 다룬 작품 중 하나는 김기리와 김형규의 '정남-서로 다른 길'이다. 화면에 등장한 배우들은 정규희며 서로를 밀쳐낸다. 각각의 분노와 욕망의 물부림은 이념·정치·세대·지역·노사 문제 같은 한국 사회 대립과 충돌을 은유한다. 장지아의 'O-N-Y-M-A-R-K'는 여러 성적 스펙트럼을 가진 10명에게 카스토마르로 들어와파멸을 그리게 한 뒤 촬영했다. 사회에서 제거·관리되는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와 통제사회, 위계질서를 비판한 작품이다. 제목은 근대 명명어인 'On my mark'를 차용한 것이다.

정연삼은 2001년 31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다.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않았던 그는 졸업작품을 빼곤 작품을 내지 않았다. 비엔날레는 국제 무대에 최초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등 5점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민중을 해부하는 장면으로 정밀하고 좌절, 불안과 공포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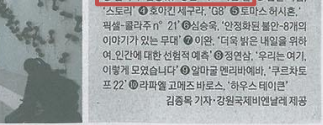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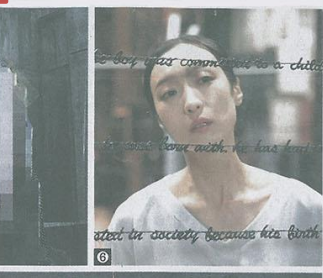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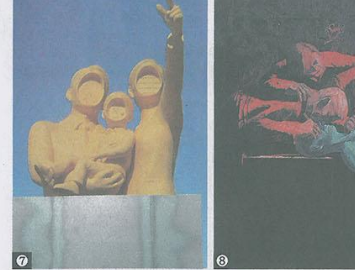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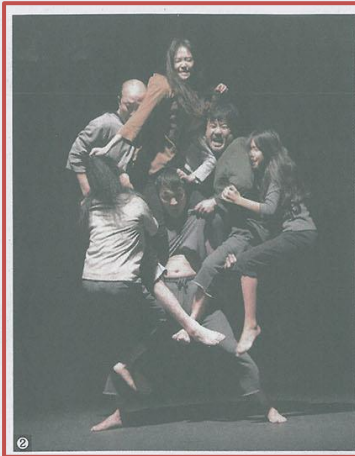
악의 표징과 희생자, 고통스러운 역사와 현실을 주로 다룬 비엔날레의 올림픽은 무순 상관일까. 총감독인 홍경현은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 악과 환란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인간 가치 회복, 실현'을 내세운다. 인간 가치가 올림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비엔날레의 화두는 '올림픽을 재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인될 수 없다는 윤리적 명령은 또한 미학적인 명령'(서동진 문화평론가)이라는 예술의 책무도 이어진다. 과격하거나 파격적인 몇몇 작품은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흥겨운 "비엔날레는 급진적이어야 하고, 낯선 방식으로 현대미술 담론을 이끄는 무대로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에는 '도립 미술관'이 없다. 전시장은 강릉녹색도시개발센터 컨벤션홀(A홀)과 가림 건축물(B홀)이다. 비엔날레 측은 A홀은 정비하고 B홀은 컨테이너로 신축했다. A홀은 몇몇 설치 작품을 담기에 역부족인 듯했다. 어느 평론가는 "자갈 먼은 자갈먼 그곳에 담아 뒀었다"고 지적했다. 그곳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윤희환한 작품이 많이 나왔다. B홀을 두곤 여러 작가가 만족감을 표했다. 23개국 58명(팀)이 110여 작품을 냈다. 전시는 3월18일까지. 무료.

김종묵 기자 jsm@kyungnews.com

## 악마를 보았다

성화가 타오르는 곳에서



① 최영림 '프래그먼트 프롬 언타이틀드21'(부분)  
② 김기리·김형규 '정남·서로 다른 길' ③ 정연삼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④ 토마스 헤시먼 '픽셀 콜라주 n° 21' ⑤ 심승숙 '안정화된 불안-우리의 인간에 대한 선행적 예측' ⑥ 정연삼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⑦ 알마그로 비엔날레 '무르치로프 22' ⑧ 라파엘 고프레 바로스 '하우스 테이큰' 김종묵 기자·강원국제비엔날레 제공